

금융감독 개편 단순함이 최선



이 정 혁
西村브리핑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조직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항상 정부 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의 이해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뉘어 있던 4대 감독기구를 합쳐 금감원을 신설했다. 금감원 조직 위에 의결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구조였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원본이랄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단순 의결 기구였던 금감위가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

거 파견받아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 부처로 변신했다. 금감원은 돌격대 역할(건전성 감독)에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장이 한명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정책과 업무 조율이 이뤄지면서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던 이런 시스템이 크게 바뀐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금감원으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재부 국내금융 부서와 금감위를 합친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금융 정책을 맡겼다. 국제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남기고, 금감원을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주저앉혔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을 고쳐 자본시장 검사도 금융위의 지도하에만 가능토록 했다. 한 사람이 겸직하던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분리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주장하는 금융정책이 금융산업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감독을 압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 부임하면 두 기관이 번번히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

을 불러왔다.

독립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구를 설치했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가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욕구와 민원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공적기관이 나서서 1대 1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속도나 결과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방식보다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이 폭 넓으면서도 촘촘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후에 금감원이 민원 건수와 해결 방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경영자들에게 사후 배상 책임과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단순함이 최선이다. 자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linh@metroseoul.co.kr

“리포트가 달라졌다?”… 여전히 말 못하는 진실



기 지 수 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왜 목표 주가를 하향했냐”는 주주의 항의 전화, “인터뷰 어렵겠다”는 기업의 유보적 반응.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와 기업 IR팀 사이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그 결과 리포트는 실적이 꺾여도 ‘매수’, 많아야 ‘중립’에 머무른다. 시장 진단보다 기업과의 거래와 투자자의 눈치를 의식한 판단이 앞서는 구조가, 증시 신뢰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20대 증권사가 발간한 수천 건의 리서치 리포트 가운데 ‘매도’ 의견은 단 0.1%에 불과했다. 매수 의견은 평균 90.4%, 중립은 9.5%였고, 무려 18곳 증권사는 상반기 내내 매도 리포트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투자 판단의 나침반이 돼야 할 리서치 보고서가 오히려 시장 기대를 부풀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앤에프’의 경우는 매출이 수분기 연속 감소세인데도 2분기 들어 나온 25개의 분석 리포트 중 단 한 건만 ‘중립’ 의견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매수’였다. 일부 증권사는 “답답되지 않는 주가 하락”이라며 오히려 시장을 탓했다.

또한 누구나 알법한 한 대형 기술주의 영업이익은 1년 새 반토막이 났지만, 리포트에서는 목표주가가 오히려 높아졌다. 실적 전망은 낮추면서도 주가 기대치는 상향 조정되는, 모순된 흐름이 반복된다.

이런 기형적 구조의 배경에는 리서치 조직의 ‘이해상충’이 있다. 애널리스트가 취재하는 기업은 동시에 자기 회사의 고객사인 경우가 많다. 매도 리포트로 주가가 하

락할 경우, 해당 기업이 증권사와 거래를 끊는 일도 실제로 벌어진다.

그렇다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 들어 급등한 원전·방산·증권주를 중심으로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추고 있다. SK증권은 미래셋증권 리포트를 통해 “기대가 과도하다”며 목표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은 1만 8000원으로 제시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원전주에 대해 ‘단기매매(trading buy)’로 의견을 바꿨다. “좋은 회사도, 항상 좋은 주식일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시장에 보여준 셈이다.

리서치 보고서는 투자자에게는 나침반이고, 기업에게는 거울이다. 애널리스트가 불편한 말도 할 수 있어야, 리포트가 다시 ‘신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 신뢰 위에서 건강한 투자와 기업 성장, 그리고 활력 있는 증시가 가능해진다.

/zelkova@

오늘의 운세 7월 11일 (음 6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투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니. 48년생 소문난 잔치에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다. 60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오니 기대가 크다. 72년생 오늘날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는데. 84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이다.



37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어라. 49년생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61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73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이 따라주지 않는다. 85년생 여행을 떠나면 상비약을 챙겨라.



38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자제해야. 50년생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62년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라. 74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6년생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39년생 기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 51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63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 75년생 가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87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필요.



4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2년생 어려운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64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 뜻을 존중. 76년생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걱정된다. 88년생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니 잘 챙겨라.



4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행운. 53년생 옛 연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65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77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89년생 고마운 표현을 해서 상대에게 알리도록 하는 예의를.



42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겹친다. 54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66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78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를 하도록. 90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43년생 얼룩진 옷은 비러난 보지 말고 세탁. 55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 주는 사람이 없다. 67년생 의견이 맞지 않으나 양보. 79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91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44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좋은 일이 있다. 56년생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라. 68년생 자주 만나야 친구 간의 정도 있다. 80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이다. 9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는데.



45년생 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57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69년생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81년생 기도로 심란한 마음을 다져 보는 것도. 93년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하루.



4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 5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한 날. 70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82년생 때로는 실력보다 성실한 자세가 중요할 수 있다. 94년생 배우자의 생일선물을 구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47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59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71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8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상쾌하다. 95년생 모임에서 체면치레하다가 손실이 커진다.



김상회의四季 장수의 비결

언젠가 외국의 유수한 신문에서 충분한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단 섭취는 질병을 예방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0만 9000명의 100세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10년 전 약 6만 5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가족 중 여러 명이 고령까지 살았다면 이미 유전자적 요소는 A 학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영양 좋은 식품과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신체 유지의 필수요건일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스트레스 적은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누가 봐도 바람직한 장수 유전자의 요인일 것이니 그렇게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필자는 오래전 서울대 통합대학원의 요청으로 오행으로 본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통계학적 수치 등 학문적 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사주에 있어 특별한 질병에 걸리는 상관성을 역학적 견지에서 설명해 본 것이다. 물론 여러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토성(土性)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위와 소장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 수(水) 기운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는 생식기나 신장 관련 질환에 의 노출이 높거나 하는 오행적 논리였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며 낙천적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약을 능가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백세를 맞이한 어느 장수자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유리잔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운동하면서도 치즈케이크나 타코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관조적인 얘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2					3
	4		8	9	6	
	8		5	2		1
	1					3
	6		1	4		9
2	5		4	7	9	
9						5
						4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1	7		9			6
	4		8	7	6	
			3			
			9		4	
8	9				7	
	8	4				
	7		6	4	8	
6				2		8
						9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7	9	8	7	9	1	8	6
1	9	8	6	7	8	9	7
6	7	8	9	1	8	7	9
8	6	7	8	1	9	9	7
9	8	9	7	8	6	7	1
7	1	7	2	9	9	6	8
9	7	1	8	9	7	7	6
7	9	9	6	8	8	7	1
8	8	6	1	7	7	9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8	7	9	1	8	6
1	9	8	6	7	8	9	7
6	7	8	9	1	8	7	9
8	6	7	8	1	9	9	7
9	8	9	7	8	6	7	1
7	1	7	2	9	9	6	8
9	7	1	8	9	7	7	6
7	9	9	6	8	8	7	1
8	8	6	1	7	7	9	7

7	6	8	1	7	7	9	8	9
8	9	1	8	7	9	6	7	7
7	7	9	6	8	9	7	8	1
9	7	7	7	9	1	8	6	8
8	1	8	7	9	6	9	7	7
6	9	7	7	8	8	1	9	7
7	7	9	8	1	7	8	9	6
1	8	6	9	7	8	7	9	9
9	8	7	9	6	7	7	1	8